

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원용

김 상 배

한울

1. 머리말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군인들이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하여 전쟁을 벌이던 시절의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 사례는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거론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여 벌어진 촛불집회와 2010년 국내 인터넷 공간을 달구었던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인터넷상의 안보 논쟁이다. 좀 더 멀게는 2000년대 들어 발생한 9·11테러와 그 이후 새롭게 조명된 테러 네트워크의 부상도 떠오른다.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위협은 최근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서 사이버 테러와 해킹이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밖에도 역사적으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초국적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역할도 주목거리이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애플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다국적기업들의 날로 증대되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의 도움을 얻어 추진한 다양한 개발협력사업, 또는 글로벌 시민사회의 인권 네트워크나 좀 더 미시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차원에서 발견되는 이민 네트워크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20세기 초엽에 그 진용을 갖춘 현대 국제정치학의 렌즈만으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 사례의 특징은 모두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초국적 네트워크 현상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그 바탕에 깔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국가(國)’들 사이의 ‘관계(際)’를 탐구하는 ‘국제정치(國際政治)’의 발상으로 풀리는 않는 문제들이다. 좀 더 본격적인 논의와 토론을 벌여보아야 하겠지만, 현대 국제정치이론의 3대 축이라고 하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은 모두 앞서 언급한 사례들에 대한 시원스러운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의 빈곤’이 발생한 이유는 이들 이론이 공통적으로 근대 국민국가라는 노드(node) 행위자에 기반을 둔 이론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야말로 새로운 네트워크의 현실을 담아낼 새로운 이론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기존 네트워크 이론의 성과를 변환의 현실에 직면한 국제정치학의 문제의식을 투영해서 원용하는 시도를 벌이고자 한다. 사실 최근 국내외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세계정치를 보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논의의 일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원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매우 아쉽다. 예를 들어, 최근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미국 국제정치학의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들은

네트워크 이론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기보다는 이 글에서 ‘사회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론 진영에 주로 착안하고 있다(Hafner-Burton, Kahler and Montgomery, 2009; Kahler ed., 2009; Maoz, 2010). 이 밖에도 기존 연구들은 ‘관계적 제도주의(relational institutionalism)’의 틀을 적용하거나(Nexon and Wright, 2007; Nexon, 2009; Goddard, 2009), 초국적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에만 초점을 두는 데(Keck and Sikkink, 1998; Stone and Maxwell, eds., 2005) 그치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 세계정치에 대한 국내의 논의도 현재 은유의 차원에서 네트워크의 시각을 차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분석의 시각을 가미하려는 시도를 벌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하영선·김상배 엮음, 2006, 2010; 민병원,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좀 더 구체적인 이론적 논제와 개념을 가지고 더욱 본격적으로 경험적 사례들을 분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이론의 원용은 기존에는 국가에만 시각을 고정하고 있어서 놓쳤던 문제들, 즉 행위자 차원이 아닌 ‘관계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국제정치의 이론적·경험적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두의 일이지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일이어서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았던 ‘간접적 관계’ 또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포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현대 국제정치이론이 숙제로 안고 있던 새로운 분석이론의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 국가 ‘행위자’ 수준을 넘어서 벌어지는 21세기 세계정치의 ‘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 행위자와 구조가 벌이는 동태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회학이나 물리학 그리고 역사학(주로 과학사)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은 그 인식론이나 방법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우 다양하다. 네트워크 개념과 이론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들이 주관

점으로 삼고 있는 네트워크의 층위가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문제는 네트워크라는 것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서 파악되는 종류의 개념이 아니라는 특징 때문에 발생한다. 사실 어느 시점과 각도에서 관찰하느냐가 네트워크의 개념을 이해하는 변수가 된다. 다시 말해 분석적 층위를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라는 존재는 유동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벌어지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시도들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진영으로 나누어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은 인식론적으로 행위자와 구조 및 과정의 구분을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논의가 국제정치학과 인연을 맺게 된 연구사적 변천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첫째, 네트워크를 하나의 ‘행위자(actor)’로서 보는 이론 진영이다.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의 조직이론에서 원용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론(Network Organization Theory)’이다. 이들 연구의 전제는 네트워크 형태의 사회조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였지만, 새로운 정보시대의 경쟁환경에서 요구되는 유연성, 적응성, 반응속도 등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네트워크형 조직이 새로운 행위자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자인 카스텔(Manuel Castells)의 일련의 저작은 이러한 네트워크 조직이론의 시각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Castells, 1996, 1997, 1998, 2009).

둘째, 네트워크를 하나의 ‘구조(structure)’로 보는 이론 진영이다. 최근 사회학과 물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많이 알려진 ‘사회-네트워크 이론(Social-Network Theory)’이다. 사회학과 인류학 및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에서는 소시오그램(sociogram)이나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각기 상이한 노드들이 맺는 연결망을 탐구한다. 특히 방법론적으로 정교화된 수학적 모델링이나 시각화 기법을 통해서 연결망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연결망의 전반적인 연결도, 호혜성과 상호성의 정도 등을 탐구하는

것이 특징이다(김용학, 2007; Gould, 2003).

셋째, 네트워크를 하나의 동태적 ‘과정(process)’으로 보는 이론 진영이다. 과학기술과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원용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ANT는 인간 및 비인간(non-human) 행위자들이 서로 이종(異種)적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과정, 즉 ANT의 용어로는 ‘번역(translation)’의 과정을 탐구한다. ANT에서 행위자란 노드와 같이 개체론의 시각에서 파악되는 행위자는 아니고, 오히려 행위자와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 행위자인 동시에 네트워크인 존재이다(Latour, 1987, 1993, 2005; Law and Mol eds., 2002; Callon, 1986a, 1986b, 1987).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세 가지 이론 진영의 논의들을 복합적으로 원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조직이론이나, 사회-네트워크 이론이나, 아니면 ANT이나를 묻고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복합해서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이 이러한 복합적 접근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어느 한 가지 이론만으로 풀어내기에는 최근 세계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트워크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세 가지 네트워크 이론 진영의 주요 논지와 이들을 국제정치학에 원용하는 작업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책에 실린 각 장들이 펼칠 작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네트워크 조직이론의 원용

1) ‘행위자로서 네트워크’의 분석

20세기 후반 들어 지구화가 본격화되면서 근대 국민국가의 쇠퇴나 소멸 또는 변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물질적 환경의 출현도 이러한 논의가 가속화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제정치 분야의 이러한 논의는 사회 전반에서 전통적인 ‘위계조직(hierarchy)’을 넘어서는 새로운 조직형태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 양식의 부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란 사회생활의 널리 퍼진 일반적인 관계의 패턴으로서의 네트워크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네트워크는 ‘위계조직’이나 ‘시장’과는 구별되는 모습의 구체적인 조직형태이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형태에 대한 논의는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국가’ 또는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출현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바 있다(Castells, 1996; 하영선·김상배 엮음, 2006; Holton, 2008).

새로운 조직형태로서의 네트워크의 출현은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도 주요 주제이다. 이렇게 출현하는 네트워크는 ‘사회형태론(social morphology)’의 시각에서 파악된 새로운 행위자이다. 지구화와 정보화는 위계조직이나 시장과 대비되는 독특한 사회조직의 형태로서 네트워크가 등장하는 데 중요한 조건을 제공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칭하여 ‘네트워크 조직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네트워크 조직이론은 집합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형태를 띠는 조직이 다른 어떠한 형태의 조직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경우 의도적으로 조직되며,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이나 기타 구성요소들이 만들어내는 경계도 자연발생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일반적 ‘네트워크’의 경우보다 명

확하다.

가장 널리 알려진 네트워크 조직이론의 접근은 신제도주의 경제학 분야의 조직이론으로 알려진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이다. 윌리엄슨의 이론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직형태는 이기적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개인의 합리성은 제한된다. 게다가 합의에 대한 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회주의마저도 발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나 위계조직과 같은 조직형태가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기업이나 위계조직은 ‘시장 실패’의 결과이다. 이러한 거래비용이론은 원래 위계조직으로서 기업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론이었으나 조직들 간의 위계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까지 확장되어 응용되었다(Williamson, 1975, 1985).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조직형태는 네트워크이다. 많은 논자들이 네트워크는 이러한 거래비용이론의 논의에 추가될 수 있는 제3의 조직형태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포월(W. W. Powell)의 논의는 그 중의 하나이다(Powell, 1990). 그에 의하면 시장이 너무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면, 위계조직은 너무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들이 실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조직형태로서 네트워크에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시장의 역동적인 유연성을 지니고 있지만 덜 기회주의적이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호성과 신뢰 및 정보 흐름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 게다가 위계조직과는 달리 네트워크는 덜 집중화되고 덜 관료적이다. 이러한 포월의 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톰슨(Grahame F. Thompson)도 관료적 위계조직보다는 좀 더 비공식적이고,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보다는 좀 더 조율되는 관계에 기반을 두는 제3의 조직형태로서 네트워크에 주목하였다(Thompson,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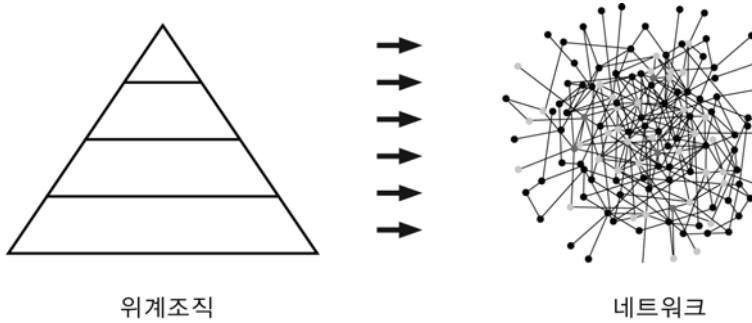
2)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론

네트워크 조직이론의 관점을 취하는 대표적인 논의는 아마도 마누엘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론’일 것이다.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에 대한 그의 이론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계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후속 논의를 위한 이론적 플랫폼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카스텔의 작업은 그 이론적 난해성이나 경험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지구화와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한 네트워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학자들보다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Stalder, 2006; Holton, 2008). 정보시대에 대한 그의 3부작,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는 경제적·기술적·정치적·문화적 테마를 연결하는 방대한 시도로서 주목받아 마땅하다(Castells, 1996, 1997, 1998).

카스텔의 이론에서 네트워크는 단순히 상호 연결되어 있는 행위자들의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일반적 의미로만 이해한다면 거창하게 새로운 사회형태론을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카스텔은 네트워크가 자체의 고유한 논리를 지니고 있으며 장차 미래의 핵심적인 조직형태로 부상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고유한 논리는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침투하여 모든 사회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직의 새로운 형태로서 네트워크가 부상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의문시되지 않는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위계조직을 대체하는 지배적 조직형태로서 네트워크의 부상은 이미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론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총체적인 사회이론의 수준에까지 발전시키고 있다(Stalder, 2006: 168).

사실 카스텔의 이론에서 네트워크는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장과 정보통신

〈그림 1-1〉 위계조직에서 네트워크로



기술의 발달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이해된 정보경제의 부상이라는 기술경제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출현하는 새로운 조직원리를 의미한다. 새로운 조직원리의 출현은 주로 위계조직의 모습을 취하던 기존의 기업조직이 유연한 문제해결방식의 도입으로 대변되는 ‘네트워크 기업’으로 변환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기업조직의 변환뿐만 아니라 기업들 간의 전략적 동맹이나 라이선싱 방식 그리고 하청생산의 모델도 변화한다(Castells, 1996: 157~164). 이러한 네트워크의 조직원리는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의 영역으로도 확산된다. 지구화와 정보화는 기존의 국민국가 행위자들로 하여금 초국가적인 동시에 국가 하위적인 제도적 틀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근대 이래 형성된 국가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케 한다. 이러한 와중에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글로벌한 차원에서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사회운동의 네트워크도 활성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조직원리로서 네트워크의 확산은 경제와 정치 및 사회 권력의 구조를 재조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Camoy and Castells, 2001).

이렇게 경제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치로 네트워크의 조직원리가 확장되는 변화의 이면에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분절시키면서, 동시에 재통

합하는 ‘흐름의 공간(space of flows)’의 부상이 자리 잡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확산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흐름의 공간’을 가능케 한 산파역이다. 이렇게 생성된 ‘흐름의 공간’은 단순히 자본의 흐름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정보, 지식, 이미지, 소리, 상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형의 존재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카스텔의 논의에서 이러한 공간은 역시 사회적 공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에 의하면 ‘흐름의 공간’의 구조와 작동방식은 기술경제적 변화의 주된 원천인 지구 자본주의의 지배 메커니즘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회에서 발견되는 조직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불평등성을 담고 있다(Castells, 1996).

3) ‘정보주의’와 네트워크의 친화성

이상의 논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운 조직형태 또는 조직원리로서의 네트워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출현하는가의 문제이다. 카스텔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네트워크 조직의 확산을 가능케 한 변화의 핵심에는 1950~1960년대에 기원을 두는 마이크로 전자공학 혁명과 그에 뒤이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출현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먼저 현실화되고, 그 이후에는 전 세계로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정보시대의 도래를 선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되고 확산된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활용하여 구축된 디지털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인터넷은 사회 전반에 네트워크의 조직원리가 스며들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조직의 형태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Castells, 2001).

카스텔에 의하면 오늘날의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예전의 그것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변수에 있다고 한다. 카스텔은 이를 ‘정보주의(informationalism)’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 정보주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이 확대되는 물질적 기반의 변동을 의미한다. 정보주의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조직에서 아무리 복잡한 조정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사실 유연성, 확장 가능성, 생존 가능성 등으로 특징화되는 오늘날의 네트워크라는 것의 원형이 역사적으로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부재했던 것은 이들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기술적 메커니즘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메커니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군대, 관료제, 대공장 등과 같은 거대한 조직의 사회적 메커니즘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이러한 사회적 메커니즘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조직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화의 도구가 출현하였다는 것이 카스텔의 주장이다(Castells, 2004).

실제로 정보주의의 확산, 즉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은 위계조직과 네트워크 간에 존재하던 긴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보통신기술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먼 거리에 걸쳐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여 놓았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조직관리와 비용부담의 사이에 존재하던 전통적인 긴장관계를 해소시켰다. 풍부한 커뮤니케이션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저비용의 유연한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위계조직의 주된 장점이었다, 공식적이고 엄격한 통제와 조정은 역으로 고비용을 야기하는 단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은 통합된 관리양식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저비용의 조정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의 조직원리가 지니고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위계조직과 같은 규모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김상배, 2010).

이러한 주장을 펼침에 있어서 카스텔은 물질적 메커니즘으로서 정보주의의 발달과 새로운 조직원리로서 네트워크의 사이에 친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정보주의와 네트워크는 동일한 현상의 양면인데, 전자가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른 하나는 형태론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의 조직원리는 경제적 재구조화와 제도적 거버넌스의 개선 그리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구축에 있어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회 각 영역에서 제기되는 조정의 수요가 새로운 기술의 발달을 가속화시켰던 것도 사실이다. 카스텔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두 가지의 동화는 원래는 독립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네트워크 사회를 건설하는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흥미로운 점은 카스텔이 이들 양자의 관계에 대한 분석적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네트워크 사회론의 관점에서 보면 정보주의와 네트워크의 친화성은 ‘인과적 필연성’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사적인 계기’의 문제로 그려진다. 사실 네트워크는 정보주의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새로운 조직형태로서의 네트워크의 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고 정보주의와 네트워크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묘사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세기 중후반에 걸쳐서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조직원리는 수많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어젠다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초창기 정보통신기술의 대다수 혁신가들은 1960년대 해커문화의 ‘네트워크 발상’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어서 그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술의 개발과 전파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보주의와 네트워크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일종의 ‘양(陽)의 피드백 관계’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talder, 2006: 186).

4) 네트워크 사회론의 한계

네트워크 사회론의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비판들이 제기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접하는 것은 카스텔의 네트워크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카스텔의 논의를 보면 모든 것을 다 ‘네트워크’로 보려 한다든지, 또는 ‘네트워크’로 ‘네트워크’를 설명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카스텔의 논지를 따르면 어느 사회운동 네트워크가 성공을 거둔 이유가 바로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라는 순환논리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면 ‘네트워크’는 의미 없는 설명변수가 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일면 타당한데,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론은 ‘네트워크’가 지니는 개념적 범위와 경계에 대한 엄밀한 정의와 분석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직관적 묘사’에 치중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Thompson, 2003; Holton, 2008).

카스텔의 논의에서 네트워크를 분석이론의 차원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카스텔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사회 네트워크 이론가들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카스텔의 작업은 사회연결망 분석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경험적이고 질충적인 성격의 질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은유적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카스텔 이론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특징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카스텔이 시도한 것은 사회-네트워크 이론에서 논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의 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는 조직원리의 부상을 포착하려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Stalder, 2006: 184~185).

오히려 카스텔의 이론에서 분석적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하려면 다른 부분을 겨냥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카스텔은 정보주의와 네트워크의 친화성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서술하고 있을 뿐,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행하고 있지는 않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회적으로 증대되는 복잡성의 사이에서 효과적인 조정의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만 제기된 것이 아니다. 기존의 학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조정 메커니즘과 그 조정의 대상이 되는 조직형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왔다(김상배,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보주의와 네트워크의 친화성에 대한 탐구는 카스텔이 시발한 네트워크 사회론의 논의를 분석이론의 지평으로 옮겨놓을 것이다. 그럼에도 카스텔의 논의는 왜 새로운 조직원리를 대변하는 네트워크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는 창발하고 다른 이슈에서는 그렇지 못한지 그리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어느 특정한 방식으로는 발현되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카스텔의 이론 구성이 경제, 정치, 문화,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사회이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카스텔이 펼치는 대부분의 논의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특징을 잡아내는 거시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에 대해서 카스텔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학계에서 수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에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네트워크의 조직원리가 인류 사회의 모든 영역에 일종의 ‘표준’으로서 전파된다는 카스텔의 주장은 좀 더 구체적인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1) '구조로서 네트워크'의 분석

최근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도 증대되면서 연구의 초점이 네트워크를 은유적 차원에서 원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좀 더 분석적인 시도를 벌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롭게 관심을 끄는 접근법은 국제정치에서 발견되는 네트워크를 일종의 '구조'로 보고 그 특징을 밝히거나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구조로서 파악된 네트워크의 개념은 '서로 연결된 노드들의 집합' 정도로 매우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해된다. 여기서 네트워크란 앞서 살펴본 네트워크 조직이론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행위자들이 의도적으로 조직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발생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행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네트워크는 일종의 '구조'이다. 최근 국제정치에서도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시동을 걸고 있다 (Hafner-Burton, Kahler and Montgomery, 2009).

사회학적 네트워크 이론의 주류를 형성하는 사회-네트워크 이론은 '구조'로서의 네트워크를 탐구한다. 사회-네트워크 이론가들은 '개인' 단위에 초점을 두는 사회학 진영과 구별하여 '사회 구조주의자(social structuralist)'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회-네트워크 이론은 상호작용하는 노드들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여기서 노드는 개인일 수도 있고 개별적인 조직, 다양한 종류의 집단, 국가, 도시, 공유된 특성을 가진 지역일 수도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노드들이 구성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링크에 의해서 연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노드와 링크가 일정한 패턴의 '구조'를 생성한다는

것이 사회-네트워크 이론가들이 착안하는 부분이다(Wellman and Berkowitz, 1988).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주요 관심사는 고부(姑婦) 간의 갈등이 아들이자 남편인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처럼 나와 개별적으로 관계가 있는 타자들의 ‘관계’가 일종의 ‘구조’로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톰슨은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행위자와 그들의 행동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이다. 둘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관계의 구조는 ‘구조’로서 인식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행위자들의 행위보다 인식론적으로 우선된다. 셋째, 행위자들 간의 관계, 즉 링크는 물질적 또는 비(非)물질적 자원의 흐름이 발생하는 통로이다. 넷째, 네트워크 구조의 환경은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서 기회 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끝으로, 사회-네트워크의 구조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패턴을 생성케 한다(Thompson, 2003: 55~56).

이러한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분석은 최근 물리학이나 네트워크 신과학(the new science of networks) 등에서 이루어진 방법론적 진전의 덕을 보고 있다. 자연계 생물의 네트워크나 기술과 통신의 네트워크 그리고 인간 네트워크 등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밝히려는 것이 이들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다. 특히 이들 연구는 네트워크 구조의 정태적인 묘사에만 그치던 기존의 연구에 네트워크의 진화론 접근과 같은 동태적인 시각이나 척도무관 네트워크(scale free networks)와 같은 구조적 시각을 도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파악되는 구조로서의 네트워크는 반드시 행위자들의 의식적인 디자인의 결과가 아니라는 특징을 지닌다(Barabási, 2002; Urry, 2003; 뷰캐넌, 2003; 와츠, 2004; 글래드웰, 2004; Newman, Barabási and Watts eds., 2006; Galloway and Thacker, 2007; Spinuzzi, 2008).

사회-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는 주류 국제정치이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구조의 개념과는 다르다(Waltz, 1979). 국제정치이론의 주류를 이루어 온 신현실주의의 구조 개념은 행위자들 간의 물질적 능력의 분포에 기반을 두는 ‘거시적(macro) 구조’를 논한다. 이에 비해 사회-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지속적인 패턴을 의미한다. 신현실주의의 ‘거시적’ 구조 개념에 비해서 ‘중범위(meso)’에서 파악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범위 구조의 개념은 거시적 구조의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행위자의 선택과 구조의 변화를 탄력성 있게 담아내는 데 유용하다. 다시 말해,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개념은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되는 관계적 구조, 즉 네트워크 그 자체라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된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개념을 국제정치 분야에 도입하면, 신현실주의가 시도한 것처럼 구조의 개념을 단위 수준으로 환원하지 않고도 행위자들 간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패턴 그 자체의 수준에서 국제정치의 구조를 개념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조의 개념을 행위자의 내적 속성으로 환원되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실체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거나 또는 이를 가로지르는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김상배, 201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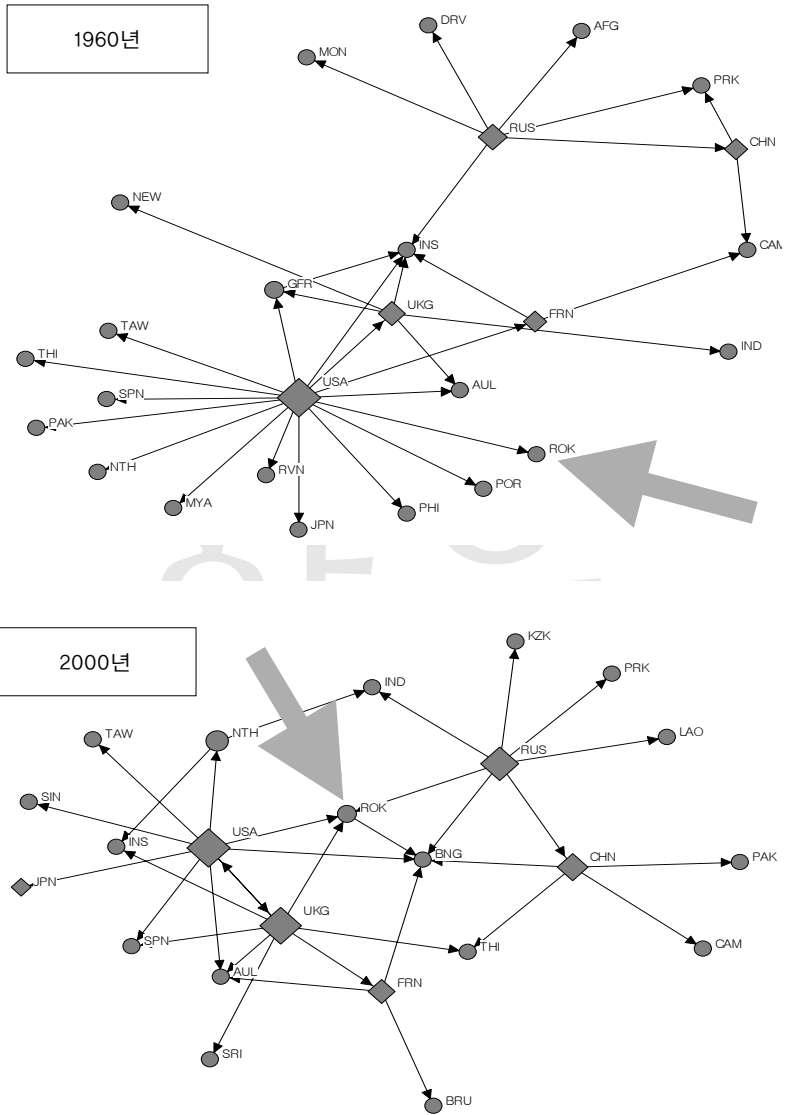
최근의 국제정치 연구에서도 신현실주의의 정태적 구조 개념을 넘어서 이러한 동태적 구조의 개념에 입각한 네트워크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Nexon and Wright, 2007; Nexon, 2009; Maoz, 2010). 국제정치학에서 진행된 다른 구조적 접근처럼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분석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생겼다. 그러나 사회-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가 선형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분석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허브(hubs), 군집(cliques),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 중개자(brokers), 위치권력(positional power) 등으로 개념화되는 네트워크상의

관계의 패턴을 찾아내고 이러한 관계들이 낳는 효과를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관계의 패턴 또는 ‘구조적 속성’은 개별 행위자들이 지닌 속성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네트워크 이론은 국제정치학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분석 수준, 즉 개별 단위나 양자와 다자 그리고 체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분석 수준에서 구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Hafner-Burton, Kahler and Montgomery, 2009: 561).

사회-네트워크 이론이 갖추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서 거시적 구조의 개념에서는 잡히지 않는 중범위 구조의 실체를 포착하는 방법론적 기법, 즉 SNA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SNA에서는 개별 행위자의 속성보다는 상호 의존하는 행위자들의 관계가 강조된다. SNA는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정교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소시오그램을 그림으로써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패턴화된 관계, 즉 구조의 실체를 밝히려는 시도를 펼쳐왔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SNA의 도입은 세계정치의 구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최근 SNA의 방법론적 발전으로 인해서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의 가입망, 국가 간 동맹의 패턴, 무기이전의 네트워크, 국제무역 네트워크, 각종 산업의 생산 네트워크, 유학생의 교류 네트워크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1-2>는 이러한 SNA를 사용한 국제정치 분야의 일례를 보여주는데, 1960년과 2000년에 아시아 25개국 간에 이루어진 무기이전의 네트워크를 소시오그램으로 그린 것이다.

SNA의 적용이 국제정치 연구에 주는 의미는 관계적 데이터의 처리나 소시오그램의 도입에만 그치지 않는다. SNA는 다양한 분석 수준을 가로지르는 관계의 변환을 모델링하는 기법과 방법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들 분석

〈그림 1-2〉 아시아의 무기 이전 네트워크



주: 화살표는 필자가 추가
 자료: 김형민(2010: 341~342)에서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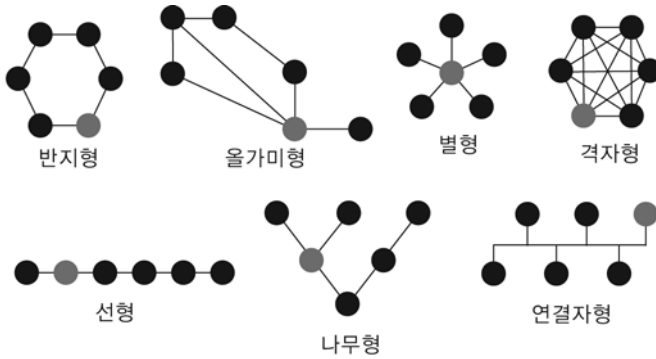
수준들을 오르내리는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SNA는 여러 분석 수준들을 단순히 집합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분석 수준으로부터 다른 분석 수준으로 전환되는 동태적 과정을 담아낼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SNA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생성되는 분석 수준을 새로이 설정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중요하게 여겨지던 분석 수준을 우회하게 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상의 단위들의 부분집합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묶어내기도 한다. 요컨대, SNA는 행위자의 속성과 관계 및 구조를 하나의 패키지 안에 결합함으로써 국제정치이론의 큰 숙제 중의 하나인 행위자와 구조의 연계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Maoz, 2010: 10).

2) 행위자와 구조의 연계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구조 분석은 네트워크상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한 행위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사회-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동일한 내적 속성을 지닌 행위자라 할지라도 주위의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각기 상이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상에서 어떠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규정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패턴이라는 노드 행위자의 외적 요인으로부터 어느 행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 그리고 좀 더 넓게는 행위자가 발휘하는 권력의 상당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Goddard, 2009; Hafner-Burton and Montgomery, 2006).

네트워크상의 ‘위치’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좀 더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1-3〉 네트워크 지형도



주: 회색 노드의 색깔은 필자가 변경

자료: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wiki/Network_topology)에서 응용

컴퓨터 네트워크 연구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지형도(network topology)의 사례를 원용해보자.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은 색으로 표시된 주위의 다섯 노드가 서로 링크를 맺는 방식이 변함에 따라, 그리하여 네트워크의 전체 구도가 변함으로써 회색으로 표시된 노드는 그 내적 속성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일곱 가지의 상이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예상된다. <그림 1-3>에서 여섯 행위자가 형성하는 구조의 패턴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남북한이 벌이는 네트워크 게임의 양상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만약에 회색 노드를 한국에 비유한다면, 6자회담의 테이블에 앉는 각국의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외교전략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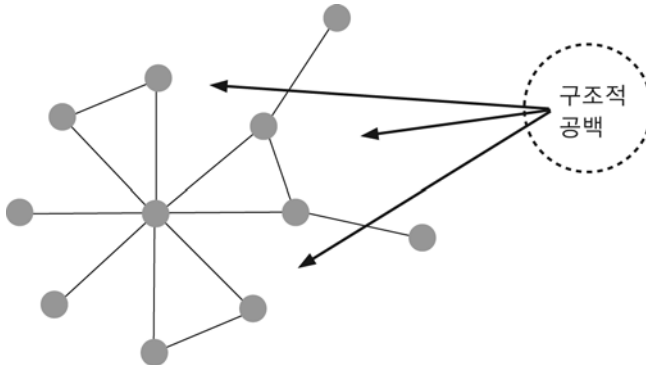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앞서 1960년과 2000년의 동아시아 무기이전의 네트워크를 다룬 <그림 1-2>도 네트워크상에서 ‘위치’가 지니는 전략적 의미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림 1-2>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각각의 무기이전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이다. 한국이라는 노드 행위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네트워크상에서 취할 수 있는 한국의 국제정치적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1960년 미국과의 링크만 있던 시절과 2000년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영국과도 링크가 있던 시절에 무기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전략의 선택지는 매우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무기이전 분야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행위자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냉전기의 개도국으로부터 탈냉전기의 중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외교전략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사회-네트워크 이론에서 제기되는 구조적 ‘위치’에 대한 논의는 행위자 차원에 주로 고착되어 있던 국제정치의 이론적 발상을 넘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이론의 오랜 숙제였던 행위자와 구조를 동시에 담아내는 이론의 개발에 단초를 제시한다. 사실 대다수의 국제정치이론은 구조를 행위자에 대한 대립항으로서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구조는 행위자를 제약하면서 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이에 반해 행위자는 구조의 제약하에서 행동하기도 하지만 간혹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네트워크 이론에서 행위자의 행동을 네트워크상의 ‘위치’라는 맥락에서 보는 것은 다소 모호하게 비칠 수 있다. ‘위치’의 맥락에서 파악된 행위자의 행동은 구조의 반영도 아니고 구조에 대한 부정도 아니기 때문이다(Goddard, 2009: 257).

그러나 사회-네트워크와 ‘위치’에 대한 논의는 행위자를 구조와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행위자를 본다. 그러나 행위자는 자체적으로 구조 변화의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행위능력은 네트워크 구조 내에 배태되어 있다. 네트워크 구조는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자원을 함유하고 있

〈그림 1-4〉 구조적 공백



다. 행위자의 행위능력이 유의미해지는 것은 이러한 자원들에 적절히 활용할 경우이다. 네트워크상에서 형성되는 구도가 행위자들에게 ‘관계적 차원’에서 파생되는 권력자원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행위자들은 이들 자원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구조를 변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Grewal, 2008; 김상배,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국제정치이론이 탐구해야 되는 논제는 행위자가 얼마나 구조의 제약을 받느냐, 아니면 행위자가 어떻게 구조를 변화시키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어떠한 조건에서 네트워크의 구조가 어떠한 행위자의 능력을 가능하게 하느냐를 물어야 할 것이다(Goddard, 2009: 258).

3) 구조적 공백과 중개자의 역할

이상에서 살펴본 행위자와 구조의 연계에 대한 논의는 ‘구조적 공백’과 중개자의 역할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조적 공백이란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분절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 간의 링크가 성기게 형성된 부분이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영학자인 버트(Ronald S. Burt)는 중개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조직에서 경쟁의 구조를 특성화하는 작업을 펼치면서 구조적 공백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 이렇게 보면 구조적 공백이란 어느 조직 내에서 정보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단절’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연결하지 않으면 단절될 집단들의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는 행위자는 그렇지 못한 행위자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버트는 중개의 의미에 대한 이론을 개발했으며, 이를 네트워크 전체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논의로 일반화시켰다(Burt, 1992, 2005).

이러한 구조적 공백 개념의 기저에는 사람이나 집단들 간의 정보의 흐름을 중개하는 중개자의 역할과 권력에 대한 논의가 깔려 있다. 중개자의 역할은 행위자의 속성이나 기질에서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특성, 즉 구조적 공백의 존재 여부에 의해서 부여되기 때문이다. 중개자로 개념화되는 행위자는 네트워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행위자들 간에 오고가는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관계의 단절, 즉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행위를 통해서 중개자는 한층 더 네트워크의 전체 구도에서 중심의 위치를 장악하게 되고, 아울러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제하는 중요한 노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허브(hub)’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게 된다.

이렇게 ‘허브’의 위치를 차지한 중개자는 다른 행위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이른바 ‘위치권력(positional power)’, 특히 중계권력(brokerage power)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장덕진, 2009; 김상배, 2008). 사회-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이러한 ‘허브’의 위치를 ‘중심성(centrality)’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중심성을 장악한다는 의미는 공간적으로 네트워크의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이

다. 이렇게 중심성을 이해하면, 무조건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해서 만 권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심 노드에 어떠한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노드들이 중심 노드와 어떠한 관계(즉, 링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권력이 행사될 가능성은 매우 다양해진다.

이러한 중심성에 대한 논의로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의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연결 중심성은 어느 특정 노드와 다른 모든 노드 간에 형성되는 ‘링크의 숫자’와 관련되는데, 이는 어느 노드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다른 노드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른 노드들과 가장 많은 링크를 갖고 있는 노드가 허브의 권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근접 중심성은 어느 노드와 다른 모든 노드들 간에 형성되는 ‘경로의 길이(또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는 어느 노드가 다른 노드들에 정보를 전달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준다. 다른 노드들에 가장 짧은 시간에 또는 가장 적은 단계를 거쳐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노드가 허브의 권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매개 중심성은 어느 특정 노드를 통해서 전달되는 네트워크상의 ‘최단 경로의 숫자’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노드에 의존하는 정도를 보여준다. 노드들의 상호작용이 어느 특정 노드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수록 그 노드는 허브의 권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Freeman, 1977, 1979).

이러한 중심성을 추구하는 중개자의 유형에 대해서는, 중개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상에서 단절된 부분을 메우는 ‘연결자(connector)’이다. 연결자가 동일한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면 상이한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상호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개자의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흐름에 ‘호환성’을 제공하는

‘변환자(transformer)’를 들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정보의 흐름을 잇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상호 소통이 단절되어 있던 ‘의미의 흐름’까지도 연결하는 ‘전달자(messenger)’도 중개자의 일종이다. 이 밖에도 의미의 흐름을 단순히 중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내용을 번역하는 중개자, 즉 ‘번역자(translator)’도 생각해 볼 수 있다(김상배, 2011a).

이러한 중개자들의 역할은 행위자 자체의 속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지니는 구조적 특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여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의 구조적 조건이 중개자로 개념화되는 행위자들이 선택하는 전략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개자의 전략은 네트워크가 지닌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추구될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 예견된다. 특히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의 전략인 경우에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네트워크의 ‘위치’ 변수가 모든 행위자들로 하여금 똑같은 종류의 중개자로서 행동하도록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떠한 구조적 조건하에서든 행위자들이 취하는 자율성의 영역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행위자가 발휘하는 자율성의 영역을 ANTI의 시각에서 탐구하였다.

4)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평가

오늘날의 세계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는 모두가 단순히 국가 행위자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형성하는 단편적인 양자관계와 그 합이라는 맥락에서는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현상은 일견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나 그들의 상호관계라는 맥락에서 관찰되지만,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 또는 ‘간접적으로 형성되

는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성격의 것들이다. 쉽게 말해, 단순히 '노드'나 '링크'가 아닌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아야 하는 문제들이다. 최근 지구화와 정보화가 진전되고 다양한 국가 간 또는 초국적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21세기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네트워크 이론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세계정치의 '보이지 않는 구조'를 가시적으로 그려낸다는 데 그 유용성이 있다. 특히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정교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소시오그램을 그리는 사회연결망분석, 즉 SNA는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패턴화된 관계를 보여주는 데 매우 유용하다. 물론 SNA는 데이터의 가용성이라는 제약요인으로 인해서 현실의 네트워크 전체보다는 그 일부분만을 그려내는 데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SNA는 다른 어떠한 연구방법보다도 복잡한 현실의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된다. 게다가 국제정치학이라는 분야가 기본적으로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만 상상하던 '보이지 않는 관계의 패턴'을 직접 보여주는 기법의 힘은 더욱 강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Maoz, 2010: 17).

그러나 SNA가 지니고 있는 한계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SNA의 한계는 경험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데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SNA에서는 가용한 데이터의 범위가 실제 분석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회현상의 종류에 따라서는(특히 국제정치 현상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SNA가 수집 가능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관계의 패턴을 그려내는 기법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비판의 논점이 된다. 사회과학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조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SNA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

다. 실제로 SNA는 관계적 패턴이라는 표피적 현상의 이면에 면면히 존재하는 ‘깊이 있는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Thompson, 2003: 55~56).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SNA에서 제기되는 분석의 결과가 좀 더 체계적인 이론적 설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SNA를 통해서 밝혀낸 상호작용의 패턴이 이리이러하다는 것을 단순히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서 그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기에는 SNA가 설정하고 있는 이론적 깊이가 알팍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SNA의 분석결과에 대해서 흔히 제기되는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So what)?’라는 질문에 대응하여 좀 더 이론적인 설명을 펼쳐내기에는 기존의 SNA가 던지고 있는 질문 그 자체가 너무나도 평면적이다. 사실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학적으로 원용하는 작업의 궁극적인 취지는 오늘날의 세계 정치에서 관찰되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를 한두 개 더 찾아내는 작업의 수준을 넘어서 다층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들 간의 상관관계를 입체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Thompson, 2003: 64~65).

바로 이 대목은 사회-네트워크 이론(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SNA)이 국제정치 연구에 주는 가능성과 한계가 갈리는 부분이다. 사실 앞서 행위자-구조의 연계와 관련된 논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네트워크 이론은 오랫동안 국제정치학에서 이론과 경험 연구의 난제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사회-네트워크 이론이 국제정치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단순한 방법론적 힌트를 주는 차원을 넘어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 가능성은 사회-네트워크 이론가들이 한편으로는 구조의 속성으로부터 행위자의 역할이 추출되고 다른 한편으로

는 행위자의 전략으로부터 구조의 패턴이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동태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펼칠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기에는 기존의 사회-네트워크 이론 진영의 작업은 다소 정태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숙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ANT에게로 넘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4.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1) ‘과정으로서 네트워크’의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네트워크 이론, 즉 ‘행위자로서 네트워크’를 탐구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론이나 ‘구조로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사회-네트워크 이론에서 제시된 논의들이 결여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가는 동태적 ‘과정’에 대한 논의이다. 네트워크로 조직형태가 변화됨을 밝혀내고 네트워크 구조와의 연관 속에서 행위자의 역할을 탐구하는 작업만으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21세기 세계 정치의 동학을 밝혀내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국가(또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구체적으로 네트워킹의 전략을 구사할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행위자’나 ‘구조’로서 네트워크를 보는 접근법을 넘어서는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네트워크 외교전략’ 또는 ‘복합외교전략’에 대한 논의와도 일맥상통한다(김상배, 2011b).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즉 ANT의 성과를 원용하여 실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동태적 과정을 분석하는 시도

에 주목했다. ANT는 1980년대 초반부터 주로 과학기술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두 사회과학자인 라투르(Bruno Latour), 칼롱(Michel Callon)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이들의 영국 커넥션이자 공저자인 로(John Law)의 지원을 받아서 발전해왔다. ANT는 비록 과학적 실험과 기술적 지식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하는 논의로서 출발했지만, 이론의 발전과정에서 공간과 장소 및 시간, 표상의 과정, 시장교환의 형태, 정치권력의 메커니즘, 경영전략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주제를 급속히 확장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30여 년에 걸친 연구의 축적과 함께 연구의 변형도 발생했기 때문에 동일한 ANT 진영 내에서도 분석적 태도나 이론 전개의 스타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다양성이 발견된다(Latour, 1987, 1993, 2005; Law and Hassard eds., 1999; Harman, 2009; 홍성욱 엮음, 2010).

ANT를 국제정치학적으로 원용하는 작업에 앞서 유의할 점은 ANT가 방법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앞서 살펴본 네트워크 조직이론이나 사회-네트워크 이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ANT는 ‘이론’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실증주의 인식론과 방법론에 입각한 ‘설명적 이론’을 추구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사회과학의 다른 이론들처럼 잘 짜인 이론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ANT는 가치와 사실, 주관성과 객관성 등과 같은 이분법이나 환원주의를 거부하는 탈근대 이론의 전통에 입각해 있다. 또한 ANT는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거시와 미시의 구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결과 하나의 미시적인 행위자나 대상도 무한히 복잡한 네트워크일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 구조화된 네트워크도 하나의 블랙박스와의 같은 행위자로 응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다분히 인류학적 연구를 연상시키는 ANT에 있어 최고의 ‘이론적 설명’은 가장 정확한 ‘서술’이며 이러한 서술은 설명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홍성욱 엮음, 2010).

이러한 인식론적 특성을 바탕으로 ANT는 어떻게 인간 및 비인간(non-human) 행위자들이 동원되고 배열되며, 더 나아가 이들 요소들이 하나로 유지되면서 이종(異種)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해가는지를 탐구한다. 특히 ANT의 논의는 인간 행위자와 주변의 물질적 환경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강변한다. 다시 말해,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건설함에 있어서 인간과 비인간, 사회와 자연, 더 나아가 네트워크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행위능력(agency)과 구조(structure) 또는 행위자(actor)와 네트워크(network) 간의 구별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이들의 결합체로서의 ‘행위자-네트워크(actor-network)’가 탐구의 대상이 된다.

ANT가 주요 연구기반인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어느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쳐나가는 과정에는 인간 행위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 변수, 즉 다른 수많은 물체들과도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이란 시험관, 시약, 유기체, 과학기술자의 숙련된 손, 현미경, 컴퓨터와 같은 이종적인 요소들이 중첩되면서 형성된 네트워크의 최종 결과물로서 이해된다. 현대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 자동차, TV, 컴퓨터 등도 지난 세월 동안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인간 및 비인간 변수들의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네트워킹의 과정에서 ANT는 ‘유동적인(mobile)’ 것들을 다시 배열하고 새로운 구도를 짜서 ‘고정시키는(immutable)’, 이른바 ‘불변의 가동물(immutable mobiles)’의 역할을 강조한다. ‘불변의 가동물’이란 지도, 사진, 그림, 텍스트, 이미지 등과 같은 실체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 의류, 포탄, 실험기구 등과 같은 이질적인 인공물들의 결합체로 나타나기도 한다(Kendall, 2004).

이렇게 형성되는 인간과 비인간 변수의 결합체로서의 네트워크는 평상시에는 하나의 행위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종적 네트워크가 하나의 행위자로 축약되는 것을 ANT에서는 ‘결절(結節, punctualization)’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하나의 행위자로 인식된 네트워크는 일종의 ‘블랙박스’가 된다. 블랙박스가 닫혀 있을수록, 즉 사람들이 그 안에 축약된 네트워크에 무관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그 블랙박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고장이 나는 순간 블랙박스가 열리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네트워크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의 엔진이 갑자기 정지하면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더 이상 하나의 블랙박스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고장이 나는 순간 사람들은 엔진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숨한 부품과 이종적인 네트워크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이전에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던 행위자는 다시 원래의 네트워크로 해체된다(홍성욱 엮음, 2010).

2)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능력

ANT에서 논하는 행위자는 개인, 그룹, 조직처럼 사회과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행위자 개념과는 다르다. 노드와 같이 개체론의 시각에서 파악되는 행위자는 아니고, 오히려 행위자와 구조, 또는 인간 행위자(즉, 사회적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즉, 물리적 환경)가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 행위자인 동시에 네트워크인 존재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로서의 행위자는 ‘자기조직화’의 메커니즘을 갖는 일종의 ‘메타 행위자(meta-actor)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란 바로 ‘인간-비인간의 집합체(collective)’, 즉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 정형화된 ‘행위자이자 동시에 네트워크인 존재’를 의미한다(Latour, 2005).

그런데 이러한 ANT의 주장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문서나 기계장치와 같은 물질적 요소에도 행위능력(agency)을 부여한다는 발상이다. ANT에 의하면 인간이 다른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비인간도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의 행위능

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물질적 환경이라는 변수도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이렇게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은 ANT에서는 ‘일반화된 대칭성(generalized symmetry)’이라고 개념화되는데, ANT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구성되는 이종적 네트워크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궤적이며 완성된 결과라기보다는 끝없는 과정이다. 어느 행위자-네트워크의 능력은 술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관계적 효과’로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인간 행위자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어떠한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느냐, 즉 사물과 어떻게 ‘동맹(alliance)’을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맨주먹으로 싸우는 병사와 말을 타고 무장한 기사가 구별되는 부분은 바로 그들이 동맹을 맺는 비인간 행위자의 존재 여부이다. 만약에 별거벗겨 놓는다면 노숙자나 나폴레옹이나 모두 다 똑같다는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별거벗은’ 나폴레옹을 ‘위대한’ 나폴레옹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주위에 형성해놓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동맹 때문이다(홍성욱 엮음, 2010).

다시 말해, 이러한 인간과 사물의 동맹관계에서 사물, 즉 비인간 행위자는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다. 나름대로의 속성으로 인해서 인간 행위자의 네트워크 짜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실험도구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의 성격에 따라서 과학자나 군인들의 선택은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떠한 도구나 시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방법은 달라지고,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냐에 따라서 전략전술은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많이 거론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경우에도 정부가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는 시도보다 네티즌들이 자신들만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꾸려나가는 행위에 좀 더 친화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ANI와 국제정치학을 연계시켜서 볼 때,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비인간 행위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정보통신기술로 대변되는 변수이다. 여태까지 국제정치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인간 변수의 행위능력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펼치지 못했다. 사실 ‘상부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은 ‘토대’에 해당하는 비인간 행위자라는 변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과 같은 ‘물질적 변수’를 블랙박스에 가두어 놓고 국제정치학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이들 변수를 단순히 도구론적 시각에서만 접근했다. 군사무기나 산업능력을 국민국가의 국가이성을 보조하는 단순한 도구로 보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기술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김삼배, 2003).

그러나 최근 지구화와 정보화로 대변되는 세계정치의 물질적 환경의 변화는 정보통신기술로 대변되는 비인간 변수를 무시하고서는 제대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특히 앞서 네트워크 조직이론에서 언급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확산은 아날로그 시대의 국제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정치의 양상을 창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비인간 요소들의 네트워크와 ‘사회 네트워크’로서의 세계정치가 유례없이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내는 비인간 네트워크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행위자들의 사회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능력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앞서 네트워크 조직이론에서 지적했던 ‘정보주의’와 ‘네트워크’ 간에 형성되는 친화성의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3) ‘번역’의 권력정치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의 문제이다. ANT에서는 이렇게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치는 과정을 ‘번역(translation)’이라고 한다. ‘번역’은 인간 행위자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동원하고 배열하며 하나로 유지하면서 네트워크를 쳐나가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번역이란 프로젝트 자체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주변 환경 등을 엮어서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들 요소들은 만약에 그냥 방치한다면 서로 분리되어 있을 것인데, 인간 행위자의 적극적인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동맹을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힘을 얻게 된다.

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번역’의 과정은 바로 권력 획득의 과정이다. ANT 이론가들 스스로도 ANT를 ‘권력 행사의 역학에 관한 이론’으로 묘사한다(Law, 1992). 행위자들이 네트워킹을 하는 ‘번역’의 과정은 절대로 평등한 과정이 아니다.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는 존재론적으로는 차별되지 않지만 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구체적으로 현실에 투영되는 과정은 전혀 평등하지 않다. ‘존재론(ontology)’의 관점에서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은 동등(equal)할지라도 이들이 네트워크를 쳐나가는 구체적인 양상을 의미하는 ‘양태론(modology)’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동등하지 않다는 ANT의 주장이 부각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Latour, 1993).

따라서 ANT의 분석에서 이러한 ‘번역’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권력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배의 메커니즘을 구성해가느냐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국제)

정치학의 분야에서 일차적으로 ANT의 ‘번역’에 대한 논의가 지배세력의 통치전략이나 국민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외교전략에 대한 논의에 적용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김상배, 2011b). 성공적인 ‘번역’을 통해서 더 많은 행위자들을 모으고 더 오래 지속되는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자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번역’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면 그것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배자의 권력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번역’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네트워크를 쳐나가는 ‘번역’의 과정은 권력의 과정인 동시에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다.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로 하여금 이미 맺고 있던 기존의 관계를 끊고 자신이 구성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유도해서 통합시키며, 이들이 다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번역’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소수의 행위자는 네트워크에 동원된 다수의 행위자들을 대변하는 권리를 갖게 되며, 이전에 비해서 더 큰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이종적 네트워크는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행위자처럼 보이는 효과, 즉 하나의 안정된 질서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발휘한다(홍성욱 엮음, 2010: 25).

이상의 논의를 국제정치이론의 분야에 적용하면 ANT의 ‘번역’은 국제정치학의 권력게임과 다르지 않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제정치란 다름 아니라 행위자로서의 ‘국가’가 여타 비국가 행위자들이나 비인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 구축의 경쟁을 벌이는 과정으로 묘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국제정치의 형성과정에서 국민국가가 지배적 행위자로 등장할 수 있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설명 가능하다. 다시 말해, 서구의 중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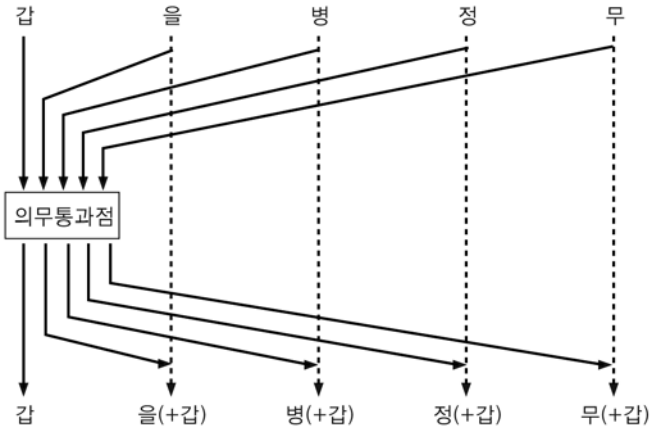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국가 행위자가 여타 비국가 행위자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번역’을 수행함으로써 지배적 행위자-네트워크로 부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근대 국제정치에서 지고의 관념으로 이해되는 ‘주권(sov^{er}ignty)’의 원칙이라는 것도 일종의 ‘번역의 양식(modality of transl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가 성공적인 ‘번역’을 행한 후에 블랙박스를 친 결과가 바로 국가 주권의 관념으로 질서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Latour, 1993).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은 이러한 블랙박스의 뚜껑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톡톡히 담당해왔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국제정치의 모습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질서로서 인식되어왔다. 그렇다면 최근 지구화와 정보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탈근대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행위자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도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새로운 도전은 근대 국제정치의 블랙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의 뼈대를 드러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국가 행위자가 ‘변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위자-네트워크의 지배적 위치를 계속 점하게 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 시도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당연시되던 근대 국제정치의 블랙박스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근대 국민국가체제의 ‘고장’ 조짐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패턴의 세계정치가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4) ‘번역’의 네 단계 전략

이러한 ‘번역’의 과정에서 어떤 행위자는 성공적으로 네트워크를 치고, 어떤 행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일반론적인 지침을 세우는 것은 가능할까? 이러한

〈그림 1-5〉 의무통과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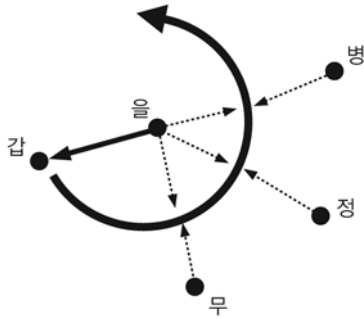
자료: Callon(1986a)에서 응용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인용되는 분석들은 프랑스의 이론가인 칼롱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이다.

칼롱은 가리비 조개의 양식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노력을 다룬 사례연구에서 인간 행위자들과 비인간 행위자들 사이의 이종적인 네트워크가 건설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다소 도식적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 간결한 단계론을 통해서 ANT의 핵심원리와 ‘번역’의 계기들을 설명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칼롱이 제시하는 ‘번역’의 과정은 i) 문제제기(problematization), ii) 관심끌기(interressement), iii) 등록하기(enrollment), iv) 동원하기(mobilization) 등으로 이어지는 네 단계를 통해서 드러난다(Callon, 1986a, 1986b).

첫째, 문제제기는 어느 행위자가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다른 행위자들을 확인하고 정의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다른 행위자들을 확인하고 정의한다는 의미는 ‘번역’의 게임에서

〈그림 1-6〉 관심끌기의 삼각형



자료: Callon(1986a)에서 응용

이해당사자가 되는 행위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의 관계구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네트워크 전체의 맥락에서 파악하도록 만든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는 비인간 행위자의 확인과 정의도 포함된다. 어느 행위자가 기존의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고 다른 행위자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의 과정을 통해서 남들이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행위자들이 반드시 거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지점을 ‘의무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OPP)’이라고 한다(Callon, 1986a).

둘째, 관심끌기는 다른 행위자들을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이들의 관심을 끌면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을 끈다는 의미로 칼롱이 사용한 용어, 즉 ‘*interessement*(to be interested)’의 원래 뜻이 ‘사이(*inter*)’에 ‘놓인다(*rest*)’라는 의미인 것을 떠올리면, ‘끼어들기’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다. 즉, 기존의 관계에 끼어들어 관심을 끌어서 질서를 해체(*deconstruction*)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행위자가 ‘을’이라는 행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을’이 ‘병’이나 ‘정’ 또는 ‘무’라는 제3의 행위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끊거나 약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끼어들기의 과정에서 ‘을’은 재정의(즉, 문제제기)되며, 이렇게 맺어진 ‘갑’과 ‘을’의 관계는 ‘을’을 정의하려는 다른 행위자들을 배제한다. 칼롱은 이러한 구도를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심끌기(또는 끼어들기)의 삼각형’으로 개념화하였다(Callon, 1986a). 이러한 관계의 재조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하는데, 기존의 관계가 견고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한 권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셋째, 등록하기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다른 행위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인 의미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칼롱이 사용한 용어, 즉 ‘enrollment’의 말뜻 자체가 ‘역할(role)’을 ‘부여한다(en-)’는 의미임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관심끌기가 아무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번역’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관계를 ‘해체’한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건설(construction)’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등록하기가 미리 정해진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할’의 부여는 행위자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검증되는 다각적인 협상의 결과이다. 등록하기는 관심끌기의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장차 행위자들에게 부여될 일군의 역할들을 암시하면서 진행된다. 따라서 만약에 관심끌기가 성공적이었다면 등록하기를 달성하기도 쉬워진다. 등록하기에는 행위자들이 등록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즉 물리적 폭력, 물질적 거래와 보상, 설득과 회유 및 공감 등이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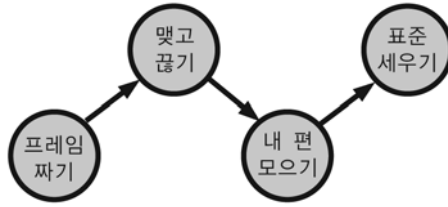
끝으로, 동원하기는 새로이 역할을 부여받은 행위자들을 자신의 네트워크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맺고 숫자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서 네트워킹의 일반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문제이다. ‘번역’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를 수행한 소수의 행위자는 네트워크에 동원된 다수의 행위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힘을 얻게 된다. 칼롱에 의하면 동원하기는 정치학자들이 ‘대변’이라고 말하고 철학자들이 ‘귀납’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Callon, 1986a). 사실 ‘번역’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이 말하려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그들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 ‘번역’의 과정이 성공적이었다면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직 한 가지 목소리, 즉 대변인의 목소리만이 들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원하기는 ‘일반 이익’을 대변하기라는 명목을 내세운 ‘특수 이익’의 관철이라는 권력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된 네트워크는 결코 고정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함축하는 의견일치와 동맹에는 언제라도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칼롱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는 ‘번역’은 ‘반역’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Callon, 1986a).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 성공하는 경우 이른바 ‘치환(displacement)’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문제제기 단계에서 행위자들에게 강요되었던 의무통과점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무통과점의 이동이란 흔히 논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변인의 대표성이 의문시되고 토론되고 협상되고 거절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대변인이 이전 대변인의 대표성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렇듯 ‘번역’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경합하면서 기존 질서가 유지하고 있는 ‘평형’의 변경을 야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번역’에서 ‘반역’까지는 ‘한 발 차이’이다. 앞서 살펴본 ‘번역’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한 발 차이’를 창출하는 ‘하이 터치(high touch)’의 전략이다.

칼롱이 제시한 ‘번역’의 네 단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그림 1-7〉 네트워크 전략의 4단계



단계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네 단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복합적으로 진행된다. 게다가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하는 것 그 자체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번역’의 과정에 대한 논의는 ANT의 이론가들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단계 또는 계기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칼롱의 네 단계 ‘번역’에 대한 구분에 주목한 이유는 다소 단순하고 도식적으로 보이는 그의 논의가 학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번역’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여러 분야의 작업에서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치면서 ‘번역’을 하는 과정을 칼롱이 제시한 바와 같이 네 단계로 나누어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접근법은 매우 유용하다. 비록 과학기술 사회학에서 주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번역’의 단계에 대한 논의는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며, 특히 정보통신기술 시스템 연구나 표준경쟁 연구 등에 원용되고 있다 (Walsham, 1997; Kendall, 2004; Lee and Oh, 2006; Kien, 2009; 김상배, 2011b). 이러한 ‘번역’의 단계론을 국제정치학의 분야로 끌어들이어서 한국이 추진하는 네트워크 전략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칼롱이 제시한 용어를 외교전략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프레임 짜기, ii) 맺고 끊기, iii) 내 편

모이기, iv) 표준 세우기 등으로 개작하여 원용할 것을 제안한다(김상배, 2011b).

5. 이 책의 구성

이 책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을 세계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투영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펼쳤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가지 네트워크 이론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원용하기보다는 이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각 사례에 적합한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분석틀을 마련하는 데 유의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이 책에서 분석한 아홉 개의 경험적 사례들은 글로벌, 아시아, 한반도의 세 수준에서 선정되었는데, 각 사례들이 품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여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이 세 부류는 ‘책머리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 거미줄 치기의 국제정치, 벌집 짓기의 세계정치, 거미줄과 벌집의 망제정치라는 은유적인 제목을 붙여서 분류하였다.

제1부 ‘거미줄 치기의 국제정치’에 실린 사례들은 기존의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주도하여 펼치는 네트워크 전략에 대한 분석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지구화와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의 국가 행위자들이 벌이고 있는 국제정치 게임의 변환과정을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실린 세 개의 장은 ‘국제정치’라는 제목 아래에 분류하였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내용은 모두 네트워크의 시각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다.

제2장 「군사변환과 변환외교의 국제정치: 미국의 네트워크 전략」에서 최인호는 국가 행위자로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네트워크 전략을 9·11 이후의 군사변환과 변환외교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미국의 네트

위크 전략을 이해하는 분석틀로서 최인호가 재구성하여 원용한 것은 행위자로서 네트워크 이론, 사회연결망 분석, ANT 등이다. 사실 미국의 세계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각의 시도로서 사회연결망 분석 등을 원용한 연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위자와 구조가 동시에 변환을 겪고 있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합적으로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최인호는 미국의 군사변환과 변환외교를 근대 국민국가와 21세기 제국의 모습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네트워크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네트워크 전략은 다양한 노드들을 엮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집합권력, 네트워크상에서 중심성을 확보하려는 위치권력, 그리고 세계질서의 프레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설계권력 등을 복합적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3장 「주권과 인권의 국제정치: 중국정부의 전략적 대응」에서 김윤희는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초국적 인권 네트워크의 비판과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ANT의 시각에서 풀어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정부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내세워 자국 내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인권단체들의 공세를 서구적 주권 개념에 기원을 두는 내정간섭의 원칙과 유교의 전통과 과도기적 경제상황에 맞게 재구성된 인권 개념을 내세워 대응해왔다. 김윤희는 이렇게 중국정부가 수행한 담론정치의 과정을 네트워크 시각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중국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자본, 조약, 인권백서 등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와의 동맹을 통해 주권과 인권에 관한 중국식 논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이를 표준으로서 공고화하기 위한 행위자-네트워크의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윤희는 이러한 과정을 미셸 칼롱이 말하는 ‘번역’의 네 단계, 즉 프레임 짜기, 맺고 풀기, 내 편 모으기, 표준 세우기의 과정을 통해 분석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제4장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의 국제정치」에서 송태은은 담론의 국제정치라는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에서 전개된 담론 대결의 성격과 구조 및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송태은은 ANT에서 제기된 ‘번역’의 네 단계에 대한 논의에 입각하여 독도 논쟁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갈등관계를 재구성하였다. 첫째, 프레임 짜기의 단계에서 일본은 독도의 ‘분쟁화’를 추구하고 한국은 ‘독도 주권의 안정화’를 위해 실효적 지배원칙을 내세웠다. 둘째, 맺고 끊기의 단계에서 일본은 독도 논쟁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한국은 이에 대한 지적 반격을 위한 증거수집작업으로 대응하였다. 셋째, 내 편 모으기의 단계에서 한국 네티즌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일본정부의 독도 도발에 대해 ‘감시·고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일본 네티즌은 ‘항의·교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끝으로, 표준 세우기의 단계에서 양국은 자국의 독도에 대한 해석을 ‘보편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번역’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송태은은 한·일 독도 논쟁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쟁점들의 복잡성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입체적으로 잡아내고자 시도하였다.

제2부 ‘별집 짓기의 세계정치’에 실린 사례들은 초국적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부상을 다루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도전과 이러한 과정에서 펼쳐지는 탈(脫)국제정치 또는 세계정치의 숨겨진 단면을 드러내보려는 것이 취지이다. 따라서 여기에 실린 세 개의 장은 기존의 국가 행위자 중심의 국제정치에 변환의 계기를 제공한 사례들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변수를 두루 아울러서 선별하였다.

제5장 「웹2.0과 인권 네트워크의 세계정치: 국제앰네스티의 사례」에서 권민주는 ANT의 시각에서 초국적 인권 네트워크와 정보통신기술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국제앰네스티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초국적 사회운동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기술발달이 초국적 옹호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미친 긍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권민주는 사용자 중심의 웹2.0 환경에서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그러한 기술적 조건이 오히려 초국적 옹호 네트워크의 활동을 감시하고 제약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국적 옹호 네트워크는 웹2.0의 새로운 기술환경에 재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활용-제약-재적응’의 3단계로 그려지는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은 정보통신기술을 단순히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단계에서 인권운동조직의 형태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 인권담론 자체의 변화가 발생하는 단계에까지 진화했다는 것이다.

제6장 「아시아 녹색혁명의 네트워크 세계정치」에서 김윤희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아시아의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을 이끌었던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IRRI)의 사례를 ANT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아시아의 녹색혁명을 냉전기 미국이 제3세계 국가들을 포섭하기 위해 추진해온 국가 차원의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과는 달리, 김윤희는 냉전기 국가 행위자들의 그림자에 묻혀 있던 민간 네트워크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한다. 냉전기 아시아의 식량난과 공산주의의 확대를 우려했던 록펠러재단이나 포드재단 등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주도하여 농업 분야 지식의 이전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시아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IRRI가 수립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쌀 개량종 등과 같은 상징적 사물의 보급 및 확산, 그리고 국가 프로그램 전략 등의 수립 등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스스로 농업부문에의 기술적·제도적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되었다는 것이다.

제7장 「결혼이주여성의 네트워크 세계정치: 한국의 사례」에서 이윤주는 한국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치·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특히 네트워크 조직이론, 사회-네트워크 이론, ANT를 다각적

으로 적용함으로써 초국적 이주현상의 일환으로서 ‘이주의 여성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결혼이주여성이 이주국인 한국과 자신의 출신국 사이에서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들 결혼이주여성의 네트워크가 단순히 정부나 시민단체 차원의 시혜를 받는 수동적 객체가 아닌 좀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정책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사례가 소프트 파워를 실현할 수 있는 외교주체로서 잠재적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닌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세(勢)를 확장해가는 능동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부 ‘거미줄과 별집의 망제정치’에서는 기존의 국가 행위자들과 새로운 비국가 행위자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네트워크 간 세계정치(inter-network politics)’, 즉 망제정치의 동학을 다루었다. 여기에 실린 세 개의 논문은 네트워크 전략을 펼치는 기존의 국제정치 행위자들이나 이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계정치 행위자들 모두 아직까지는 타방을 압도할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경합을 벌이면서 새로운 네트워크 시대의 세계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제8장 「사이버 안보의 망제정치: 사이버 창이나? 디지털 방패냐?」에서 최인호는 최근 급속히 각국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종 국제회담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의 사례를 다루었다. 사이버 안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국제정치학적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최인호는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사이버 안보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주요점들 중 부분은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행위와 행위자의 부상이 지니는 의미를 밝혀보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다양한 네트워크 이론을

행위자, 구조, 과정의 측면에서 복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사이버 위협과 방어의 망제정치를 분석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최근호는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정보혁명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로서 분산된 군단의 사이버 위협 네트워크와 이를 막으려는 디지털 동맹이 부상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 행위자 간의 망제정치는 ‘착취혈’과 ‘네트워크 땀장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주목하였다. 끝으로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이 사이버 망제정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펼쳐고 있는 다양한 프레임 설계의 전략도 다루었다.

제9장 「국제개발협력의 망제정치: 유엔 새천년마을 사업의 사례」에서 김지연은 국가 행위자가 아닌 국제기구로서 유엔이 벌이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네트워크 전략을 새천년마을 사업(Millennium Village Project)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김지연은 유엔이 벌인 새천년마을 사업을 전문지식과 인식을 공유하는 지식 네트워크가 국제사회의 영역에서 작동한 사례로 인식한다. 특히 새천년마을 사업의 지식 네트워크가 국가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개발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공백, 즉 각 기관과 정부 간 협력의 부족에 의한 정보와 자금의 단절을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천년마을 사업의 복합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을 주목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활동의 방향성을 제공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프로토콜 제공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김지연은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지식 네트워크가 갖는 독특한 권력의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성격을 탐구하고 있다.

제10장 「천안함 사건의 망제정치: 진실게임, 신뢰게임, 집합게임」에서 송태은은 2010년 상반기 국내정치를 달구었던 천안함 침몰사건을 둘러싼 담론정치를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천안함 사건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가려내려는 남북한 간 진실게임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네티즌,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대변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가담하여 정부의 사실해석에 대항담론을 형성하게 되면서 점차로 복합적인 신뢰게임의 양상으로 변화해갔다는 것이 송태은의 인식이다. 또한 국내에서 해석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한국정부가 논의의 장을 국제무대로 끌고 가면서 천안함 사건은 네트워크 권력정치 요소가 가미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송태은이 집합게임이라고 칭하고 있는 정치게임에서 주변 국가들은 천안함의 진실보다는 국가적 득실관계와 지역정치적 전략에 의거해 자국의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러한 와중에 한국정부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세를 규합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송태은은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들을 원용하여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층적 네트워크들 간의 정치, 즉 망제정치의 시각으로 풀어내었다.

한울

아카데미

참고문헌

- 글래드웰, 말콤(Malcolm Gladwell). 2004. 『티핑 포인트』. 21세기북스.
- 김상배. 2003.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3(4), 33~58쪽.
- _____. 2008.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42(4), 397~408쪽.
- _____. 2010.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한울.
- _____. 2011a.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국제정치논총》, 51(3), 51~77쪽.
- _____. 2011b.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국가전략》, 17(3), 5~40쪽.
- 김용학. 2007. 『사회 연결망 이론』 개정판. 박영사.
- 김형민. 2010. 『무기이전 네트워크의 사회연결망 분석』. 하영선·김상배 엮음.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327~351쪽.
- 민병원. 2009. 『[쟁점주제논평] 네트워크의 국제관계: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한계』. 《국제정치논총》, 49(5), 391~405쪽.
- 뷰캐넌, 마크(Mark Buchanan). 2003. 『넥서스: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세종연구원.
- 와츠, 던컨(Duncan J. Watts). 2004. 『Small World: 여섯 다리만 건너면 누구와도 연결된다』. 세종연구원.
- 장덕진. 2009. 『정치권력의 사회학적 분해: 자원 권력과 네트워크 권력』. 김상배 엮음. 『소프트 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한울, 197~241쪽.
- 하영선·김상배 엮음.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 _____. 2010. 『네트워크 세계정치: 은유에서 분석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홍성욱 엮음. 2010.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
- Barabási, Albert-László. 2002.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Brokerage and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allon, Michel. 1986a.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en of St. Briec Bay." John Law(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pp. 196~233; 미셸 칼롱. 2010. 『번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가리비와 생브리의 만(灣)의 어부들 길들이기』. 홍성욱 역음.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 57~94쪽.
- _____. 1986b. "The Sociology of an Actor-network: the Case of the Electric Vehicle." Michel Callon, John Law and Arie Rip(eds.). *Mapping the Dyna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ology of Science in the Real World*. London: Macmillan, pp. 19~34.
- _____. 1987. "Society in the Making: the Study of Technology as a Tool for Sociological Analysis." W. E. Bijker, T. P. Hughes, T. Pinch(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London: The MIT Press.
- Carnoy, Martin and Manuel Castells. 2001. "Globalization, the Knowledge Society and the Network State: Poulantzas at the Millennium." *Global Networks*, 1(1), pp. 1~18.
-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_____. 1997. *The Power of Identi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_____. 1998. *End of Millennium*,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_____. 2001. *The Internet Galaxy: Reflections on the Internet, Business and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in Manuel Castells(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pp. 3~48.
- _____.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eeman, Linton C. 1977. "A Set of Measure of Centrality based on Betweenness." *Sociometry*, 40, pp. 35~40.
- _____.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pp. 215~239.
- Galloway, Alexander R. and Eugene Thacker. 2007. *The Exploit: A Theory of Networks*.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oddard, Stacie E. 2009.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1(2), pp. 249~281.
- Gould, Roger V. 2003. "Uses of Network Tools in Comparative Historical Research."

-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hemeyer(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Social Scienc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41~269.
- Grewal, David Singh.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afner-Burton, Emilie M. and Alexander H. Montgomery. 2006. "Power Posi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cial Networks and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0(1), pp. 3~27.
- Hafner-Burton, Emilie M., Miles Kahler and Alexander H. Montgomery. 2009.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 pp. 559~592.
- Harman, Graham. 2009. *Prince of Networks: Bruno Latour and Metaphysics*. Melbourne: re.press.
- Holton, Robert J. 2008. *Global Network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ahler, Miles(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Keck, Margaret E. and Kathryn Sikkink. 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Advocacy Network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endall, Gavin. 2004. "Global Networks, International Networks, Actor Networks." Wendy Larner and William Walters(eds.).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New York: Routledge, pp. 59~75.
- Kien, Grant. 2009. "An Actor Network Theory Translation of the Bush Legacy and the Obama Collectif." *Cultural Studies↔Critical Methodologies*, 9(6), pp. 796~802.
- Latour, Bruno. 1987.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Reassess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w, John and Annemarie Mol(eds.). 2002. *Complexities: Social Studies of Knowledge Practices*. Duke University Press.
- Law, John and J. Hassard(eds.). 1999. *Actor Network Theory and After*. Oxford: Blackwell.
- Law, John. 1992. "Notes on the Theory of the Actor Network: Ordering, Strategy and Heterogeneity." *Systems Practice*, 5(4), pp. 379~393; 존 로. 2010. 『ANT에 대한 노트: 질서 짓기, 전략, 이질성에 대하여』. 홍성욱 엮음. 『인간·사물·동맹: 행위자

- 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 37~56쪽.
- Lee, Heejin and Sangjo Oh, 2006. "A Standards War Waged by a Developing Country: Understanding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from the Actor-Network Perspective."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15, pp. 177~195.
- Maoz, Zeev. 2010.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man, Mark, Albert-László Barabási and Duncan J. Watts(eds.). 2006.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Network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exon, Daniel and Thomas Wright. 2007. "What's at Stake in the American Empire Deb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2), pp. 253~271.
- Nexon, Daniel. 2009.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owell, W. W. 1990. "Neither Markets nor Hierarchy; Network Forms of Organiz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ur*, 12, pp. 295~336.
- Spinuzzi, Clay. 2008. *Network: Theorizing Knowledge Work in Telecommun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lder, Felix. 2006. *Manuel Castells*. Cambridge, UK: Polity.
- Stone, Diane and Simon Maxwell(eds.). 2005. *Global Knowledge Network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Bridges Across Boundaries*. Oxford: Routledge.
- Thompson, Grahame F. 2003. *Between Hierarchies and Markets: The Logic and Limits of Networks Forms of Organizatio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rry, John. 2003. *Global Complexity*. Cambridge: Polity.
- Walsham, G., 1997. "Actor-network Theory and IS Research: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A. S. Lee, J. Libenau, J. I. DeGross(eds.). *Information Systems and Qualitative Research*. London: Chapman & Hall.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 Wellman, Barry and S. D. Berkowitz, 1988. *Social Structures: A Network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liamson, Oliver E.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Free Press.
- _____.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Free Press.